

손흥민 vs 네이마르 8강 길목 '대충돌'

한국 내일 새벽 브라질과 대망의 월드컵 16강전
이기면 사상 첫 원정 8강 대업... 조규성은 '원톱'

아시아를 넘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최고의 골잡이로 우뚝 선 손흥민(토트넘)과 브라질의 '슈퍼스타'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가 월드컵 16강전에서 정면충돌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6일 오전 4시 카타르 도하의 스타디움 974에서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브라질을 꺾으면 사상 처음으로 원정 월드컵 8강 진출의 대업을 이룬다.

지금까지 한국 축구가 월드컵 8강에 올라 본 것은 4강 신화를 쓴

2002년 한일 대회가 유일하다.

벤투호 공격의 중심에는 이번에도 손흥민이 설 전망이다.

브라질에 객관적 전력에서 크게 뒤지는 한국이지만, 손흥민만큼은 예외다. 지난 시즌 EPL에서 23골을 폭발하며 공동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 골잡이로 인정받는다.

네이마르도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 22골을 넣었으나, 프랑스 리그1은 EPL보다는 한 수 아래 리그로 평가된다.

손흥민과 네이마르는 프로 무대에서 맞대결을 펼친 적은 없다. 대

표팀 유니폼을 입고서만 2차례 대결해 네이마르가 판정승했다.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상태가 완전히 않은 황희찬이 이번에도 후반 조커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보이는 가운데, 손흥민과 이재성(마인츠)이 좌우 공격수로 나서고 조규성(전북)이 원톱으로 선발 출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브라질전에서 골 맛을 본 황희조(울림피아코스)가 조규성 대신 선발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황희조는 지난 10년간 브라질을 상대로 골을 넣어 본 유일한 한국 선수다.

이강인(마요르카)이 포르투갈전에 이어 2경기 연속 선발 출격해 황인범(울림피아코스)과 함께 공격 2선 중앙에 설 전망이다.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정우영(알사드)이 나서고, 포백 수비라인은 왼쪽부터 김진수(전북), 김민재(나폴리), 김영권(울산), 김문환(전북)이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가 장판지 근육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한다면 포르투갈전에서처럼 권경원(감바 오사카)이 김영권과 중앙수비를 맡을 수도 있다. 골키퍼 장갑은 변함없이 김승규(알샤바브)가 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연장전까지 간다면, 승부차기에 대비해 선방에 강점을 보이는 조현우(울산)를 교체 투입할 수 있다.

가나전에서 레드카드를 받아 포르투갈전을 관중석에서 지켜봐야 했던 벤투 감독은 다시 벤치로 돌아와 태극전사들을 직접 지휘한다.

연합뉴스

수석 정조국·공격 하대성·수비 최효진

제주Utd 2023 시즌 맞아 코칭스태프 재편

마철준 코치는 프로스카우터로 보직 변경



정조국

마철준

최효진

하대성

송유결

제주유나이티드는 2023 시즌을 앞두고 남기일 감독 이하 코칭스태프 재편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기존 코칭스태프 간의 이동이 이뤄졌다. 2020 시즌 종료 후 현역 은퇴와 함께 남기일 사단에 합류해 성공적인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정조국(38) 공격코치가 수석 코치로 승격했다. 정조국 수석코치는 현역 선수 시절부터 지도자까지 남기일 축구의 핵심으로 끊임 없는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수석 코치였던 마철준 코치는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선수 보는 눈을 바탕으로 2023 시즌 전력 강화와 선수단 재편을 위해 프로 스카우터로 보직을 변경했다.

제주에는 또 2023 시즌 전술의 완

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술코치직을 신설했다. 전술코치는 K4리그 양평FC를 이끌었던 윤대성(48) 감독이 맡는다. 윤대성 전술코치는 2021년까지 부산 아이파크, FC 서울, 서울이랜드에서 유소년 육성에 힘썼으며, 올해에는 양평FC의 지휘봉을 잡았다.

리더십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젊은 인재들도 영입됐다. 최효진(39) 전남 코치(39)가 수비 코치로 가세한다. 하대성(37) 강원 코치는 새로운 공격 코치로 합류했다. 송유결(37) 강릉시민축구단 코치는 GK 코치로 임명됐다. 현역 시절 빠른 상황 판단력이 돋보였던 송유결 GK 코치는 선수들과 함께 제주 뒷문의 안정감을 더할 전망이다. 조성윤기자

한국 축구 '한계' 넓힌 벤투호...

월드컵 연속 멀티 골 기록
손흥민 공격포인트 공동 1위

벤투호가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오르면서 한국 축구도 2가지 '한계'를 넘었다.

3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벤투호가 이날 오전 조별리그 H조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2-1로 물리치면서 한국 축구는 월드컵 무대에서 득점과 관련된 2개 기록을 세웠다.

2-3으로 진 2차전 가나와 경기에 이어 포르투갈전에서도 2골을 넣어 최초로 월드컵 무대에서 2경기 연속 멀티 골을 기록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2골을 넣은 경기가 11차례나 되지만 같은 대회에서 연달아 멀티 골이 나온 적은 없었다. 1994 미국 대회에서는 1차전 스페인(2-2 무승부), 3차전 독일(2-3 패)에 두 골을 터뜨렸지만 2차전 볼리비아와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겼다.

역대 최고 성적을 낸 2002 대회에서는 3차례나 2골을 터뜨렸지만

각자 라운드가 달랐다.

처음으로 원정 16강을 이룬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서도 조별리그 1차전 그리스(2-0 승), 3차전 나이지리아(2-2 무승부)와 경기에서 2골이 나오긴 했다. 그러나 2차전에서 아르헨티나에 1-4로 대패했다.

아울러 포르투갈전 멀티 골로 한국 축구는 경기당 평균 득점 1골도 넘겼다.

1954 스위스 월드컵부터 출전한 대표팀은 2018 러시아 대회까지 34경기에서 34골을 넣었다. 딱 경기당 1골씩 넣은 셈인데, 이번 조별리그 3경기에서 4골을 넣으면서 '1골의 벽'을 넘게 됐다.

포르투갈전은 선수들에게도 풍성한 기록을 선물했다.

간판 손흥민(30·토트넘)은 후반 추가 시간 혼자서 수십 미터를 전진해 황희찬(26·울버햄프턴)의 극장 골을 도우면서 공격포인트 하나를 추가했다.

이로써 역대 한국 선수 공격포인트 공동 1위(3골 1도움)에 올랐다.

연합뉴스



뜨거운 포옹 나누는 손흥민-황희찬 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에 성공한 대표팀 손흥민과 황희찬이 뜨거운 포옹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컵유도대회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5-8일 한라체육관... 10개국 1700여 명 출전

2022 제주컵 국제유도대회가 8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5일 한라체육관에서 대한유도회 주최로 개막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10개국에서 1700여명의 참가하며, 초·중·고·대학·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회 참가신청결과 남중부가 가장 많은 380명이 출전하며, 남고부 335명, 남초부 244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남고부 -73kg은 71명이 출전해 최고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남고부 -66kg도 61명이 나섰고 남초부 -36kg(59명)을 비롯 남중부 -55kg(54명), -60kg(53명), -66kg(56명) 등에서도 50명 이상의 선수가 집중되면서 열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단체전 역시 초등부(26개팀)와 남중부(25), 남고부(17) 등에서 많은 팀이 출전하면서 정상을 향한 각축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급학교 진학 등을 앞둔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으면서 내년 시즌 전력점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시도별 또는 학교 및 클럽간의 눈치싸움이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홈코트에서 피날레를 장식하려는 제주 선수들도 출전체비를 마쳤다. 제주유도는 올 시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와 각종 전국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리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선전이 예고되고 있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2억원 기획보증보험 가입

2023년 황금연휴 전세기

떠나요! 마닐라닐라닐라

양국정부인허가조건

제주↔필리핀/마닐라

3박4일

관광
올포함

125만원
(미취학아동 : 85만)

골프
올포함

159만원
(54H/3조이상 단독)

항공권

69만원
(선착순 30명)

출국 22:30-01:00 | 귀국 17:00-21:30

현지 추가비용 없음!!

1차 (구정연휴) 01.22(일) ~ 01.25(수)

2차 (겨울방학) 02.24(금) ~ 02.27(월)

3차 (4월휴가) 04.06(목) ~ 04.09(일)

4차 (6월연휴) 06.03(토) ~ 06.06(화)

5차 (추석연휴) 09.30(토) ~ 10.03(화)

6차 (크리스마스) 12.22(금) ~ 12.25(월)

니하오여행사 064-722-6638

포함사항 : (공동)항공료, 5성급호텔, 차량료, 마사지(2회), 한국어가이드, 여행자보험, 가이드&기사팀 1인
불포함사항 : 매너팁, 캐디팁(18홀/\$2)

① 관광 : 식사, 입장료 ② 골프 : 그린피(54H), 캐디피&카트피, 클럽식&셔츠
※전세력의 경우 양국가(국토교통부)의 허가에 따라 기재된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